영종지역에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인천 중구, 제2청사 건물 '영종구 보건소'로 활용

ICT장비 도입… 스마트운동존등 조성 7월 가동

인천 중구는 '영종구' 출범 원년을 맞아 보건소 확장,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 등 영종국제도시 지역 공공보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강화에 나선다.

이는 오는 7월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으로 영종국제도시가 '영종구'라는 독자적인 자치구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더욱이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 보유지에 인구 13만명을 돌파했음에도 현재까지 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보완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현 중구 제2청사 건물을 '영종구 보건소'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남녀노소 누구나 체계적·효율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보건소내에 ▲스마트운동존 ▲통합상담존 ▲건강측정존 ▲기초체력존 ▲건강활동존 등 5대 건강존(Zone)을 조성해 오는 7월부터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자세·체형 분석, 보행 패턴 분석·교정, 실시간 운동 지도, 전신 진동 자극운동 등이 가능한 'ICT 기반 장비' 도입 절차를 추진 중이다.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질환 중증화를 예방하는 한편,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실천을 유도해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또한 구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와 건강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노인전용 건강관리 공간인 '어르신 건강백세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오산시, 중동發 경제위기 대응체계 가동

물가관리반·기업지원반등 4개 전문대응팀 구성

주유소 유가 점검·기업 피해 접수창구 운영키로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며 지역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자, 경기 오산시가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 체계 가동에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충돌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고, 지난 19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경제문화국장이 부단장을 맡아 물가관리반, 기업지원반, 에너지관리반, 농축산물반 등 4개 전문 대응팀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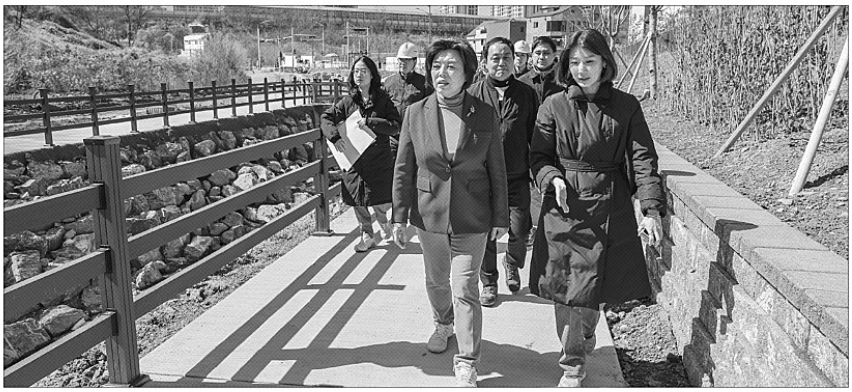
시는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시민들의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유소 유가 점검과 석유·가스 수급 관리, 중동 사태 관련 기업 피해 접수 창구 운영, 생필품 사재기 및 매점매석 행위 점검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지역내 주유소 33곳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게시 여부와 유류 재고 보유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공유하며,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향후 주간 단위로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운영해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신계용 시장이 제비울천 산책로를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5월1일 막올라

市, 문화광장서 3일간 개최… 동춘서커스 개막공연

국내 작품 16개 선보여… 佛·日·英등 초청작품도

경기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오는 5월1일부터 3일까지 안산문화광장에서 개최되는 '2026 제22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공식 슬로건과 포스터, 그리고 공연 프로그램을 전격 공개했다.

올해 축제는 '거리에서 만난 예술, 세상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축제는 5월1일 오후 7시, 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유일의 서커스단 동춘서커스의 '버라이어티 서커스쇼'로 개막의 포문을 연다. 공중곡예, 지상묘기, 마술 등이 결합한 서커스와 동춘서커스의 초대형 묘기 '생사륜'을 만날 수 있다.

축제의 피날레인 3일 오후 8시에는 캐나다 예술단체 서커스 칼리반떼(Circus kalabante)의 'WOW' 공연으로 색다른 서커스를 관람할 수 있다. 기니 출신 예술가들의 공중 퍼포먼스와 화려한 곡예에 유쾌한 코미디가 더해진 공연이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대규모 불꽃놀이가 펼쳐져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올해는 프랑스, 일본, 인도, 영국, 캐나다 등 총 5개국의 수준 높은 해외 초청작이 안산을 찾는다.

국내 공연으로는 마차의 꿈을 싣고 전세계를 유랑하는 현대판 돈키호테들의 유쾌한 이야기를 선보일 극단 분홍양말의 '남만유랑극단:마차극장', 사라져가는 공동체 공간과 이웃, 골목의 문화를 움직임으로 포현한 리타이틀의 '초대', 움직이는 침대를 타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 항해하는 마린보이의 '항해', 대사 없이 몸짓과 인형으로 펼쳐지는 관객 참여형 환경 공연 백창팩토리의 '인어인간'을 비롯한 16개의 엄선된 작품이 관객을 기다린다.

공연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제미꿀통 정글짐', '바닥그림 낙서판'과 청소년들의 에너지를 발산할 '랜덤댄스 스테이지', '스트레스 프리존' 등 세대별 특화 공간이 마련된다.

안산=송운근 기자 ygs@siminilbo.co.kr

과천시, 제비울천 산책로 이달 말 개방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안전사고 우려요소 보완조치

경기 과천시가 최근 지식정보타운 내 제비울천 산책로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제비울천 산책로의 조기 개방을 앞두고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된 것으로, 신계용 과천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했다.

시는 당초 제비울천 산책로를 2026년 6월 2단계 준공 시점에 맞춰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시민들의 여가·휴식 공간 수요를 반영해 산책로를 이달 말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제비울천은 지식정보타운 내 주요 하천으로, 현재 하천 정비와 산책로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산책로가 미개방 상태임에도 이용객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완 조치를 완료한 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개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비울천 산책로를 시민들이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 개방을 추진하는 만큼 안전 확보와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임종민 기자 lim@siminilbo.co.kr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공감대 확산

인천 동구, 주민설명회 개최

2만8000명 서명운동 동참

인천 동구가 최근 동구문화체육센터에서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7월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물포구(현 동구·중구 내륙 통합)'에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 그동안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범구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물포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인천항의 배후 지역이자, 수도권의 관문으로서 우수한 접근성을 자랑한다. 특히 해사사건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로펌 및 선사들이 접근성이 좋다는 점에서 제물포구에 법원이 들어설 경우 이용자의 편의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사 법원이 유치된다면 법조계 인력 유입, 컨설팅, 금융, 보험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제물포구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인구 유입 및 상권 활성화로 이어져 제물포구의 원도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구는 그동안 제물포구 출범에 발맞춰 해사법원 유치를 지역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삼고 행정의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25년 10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같은해 11월에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2만8000여명에 달하는 구민들의 지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중구·동구 주민이 원팀이 돼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3월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하천구역 무단점유 실태 점검

김포시, 불법경작·농막등 단속

경기 김포시는 하천구역내 불법경작 및 가설 건축물 설치로 하천기능 저해와 재해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석범 부시장은 최근 계양천 수해상습지 공사 부지를 찾아 하천구역내 불법경작 및 가설건축물(농막) 무단점유 실태를 점검했다.

시는 하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석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점검 대상은 지역내 하천 및 소하천 55곳이며, 중점 관리대상으로 봉성포천, 나진포천, 계양천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1차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조치시 무관용 원칙으로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포=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파손 보도블록' 시민 눈으로 찾는다

파주시민네트워크, 단원 모집

보행불편 요소 모니터링 활동

파주시민네트워크가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6 파주 거리모니터링단' 모집에 나선다. 이번 '거리모니터링단'은 시민이 직접 일상 속 보행 불편 요소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파주시를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시민 주권의 지역사회'로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거리모니터링단'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보도블록 파손 및 불법 적치물 점검 ▲점자 블록 훼손 등 교통약자 시설 발굴 ▲버스 노선 최적화 및 정류장 환경 개선 제안 등 생활밀착형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4월23일까지며,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시민 및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파주=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올해 주민참여예산 56억 투입

평택시, 오늘부터 제안 공모

경기 평택시가 23일부터 오는 5월22일까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규모는 56억원이며, 공모 분야는 ▲평택시 전반의 현안 해소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시 일반제안사업 ▲읍·면·동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읍·면·동 일반제안사업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사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

제안을 희망하는 주민은 제안서를 작성해 더나은평택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시청 자치행정협치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와 '주민참여예산 제안발굴 컨설팅' 등을 통해 관련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평택시 및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0월에 선정된다.

평택=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유사~삼합 간(시도 8호선) 도로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방세환 시장의 모습.

광주시, 해빙기 주요 공사현장 7곳 현장 점검

경기 광주시는 해빙기를 맞아 시민 안전 확보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현장 점검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지역내 주요 공사 현장 7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동결됐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위주로 구성됐다. 현장 점검에는 방세환 시장이 직접 방문했으며 장심리 마을 진입도로(리도 205호선), 유사~삼합간(시도 8호선), 매산3통 마을안길 등 도로 확장 및 재포장 공사 현장과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건립, 산이리 족구장 개선 사업 등 복지·체육 시설 현장의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또한 구석말천 정비사업과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재해 예방 대책과 공정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광주=전용원 기자 jyw@siminilbo.co.kr

용인시, 공사장·급경사지 해빙기 사고 차단 온힘

경기 용인시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결빙과 해빙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포트홀, 균열, 지반침하, 옹벽 균열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수지구 전역의 도로를 비롯해 대지면적 1500㎡ 이상 건설공사장 40곳, 급경사지 3곳, 도로 옹벽 9곳, 하천 14곳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도로 포장 상태 ▲볼라드·중앙분리대 파손 여부 ▲경사면 안전성·옹벽 균열 여부 ▲하천 내 운동시설물의 결함 및 이상 여부 등이다.

특히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절개지 붕괴, 지반 침하 등 해빙기 취약 요인을 집중점검하고, 공사현장 내부 확인과 인허가 부서의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용인=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연천군-세계밀리터리 룩 페스티벌 업무협약

경기 연천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사단법인 세계밀리터리 룩 페스티벌과 군(軍) 문화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인 가족의 날 행사와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협력과 민·관·군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연천군과 사단법인 세계밀리터리 룩 페스티벌 관계자를 비롯해 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군 관련 문화 콘텐츠 발굴과 군인 가족 대상 프로그램 협력 등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군인 가족의 날 및 세계밀리터리 룩 페스티벌 행사와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협력, 군 관련 문화 콘텐츠 발굴, 군 문화 행사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연천=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시흥시, 中 사회복지·실버서비스 대표단과 간담회

경기 시흥시가 최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중국 사회복지 및 실버서비스협회와 실버산업 관련 기업 대표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실버산업 동향과 노인 의료 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국 사회복지 및 실버서비스협회의 쉬젠쭝 집행회장을 비롯해 실버산업, 돌봄서비스, 고령친화 주거, 의약 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계자들도 함께해 교류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시는 산업·연구 기반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소개하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병원 조성 계획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고령화 대응, 돌봄서비스, 헬스케어, 바이오산업 등 공동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행사는 참석자 소개와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시흥시 홍보영상 시청, 캠퍼스 및 병원 계획 설명, 환담,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단은 간담회 이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부지를 둘러보며 현황을 확인했다.

시흥=송운근 기자 ygs@siminilbo.co.kr

인천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자 맞춤형 친절 교육

인천 강화군이 최근 민원 업무 담당자와 신규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불편 요소와 다양한 수요를 이해하는 한편,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고충까지 함께 고려해 보다 실효성 있는 민원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특이민원 대응시 공직자의 감정 보호를 위한 '경계 설정의 중요성' ▲상황별 민원 응대 요령 ▲공감 기반 소통 방법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이 다뤄졌다. 강의는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높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교육 중간에는 색소폰 공연을 마련해 공직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교육 몰입도를 높이는 시간도 함께 제공됐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